

장성 약수천 생태·문화공간으로

2015년까지 117억 들여 정비사업 2.2km 구간...재해예방사업도 병행

오는 2015년 장성군 북하면 중심 상업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약수천이 문화공간 및 생태하천을 갖춘 친수(親水)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장성군은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117억원(국비 70억·군비 47억원)을 투입해 약수천 총 2.2km 구간을 대상으로 약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약수천의 재해예방 방지와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

진된다.

약수천은 북하면 소재지 중심 상업지역을 기점으로 흐르는 주요하천으로, 상류에 백암산이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4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약수천은 하천경사가 매우 심해 집중호우시 하류 일부 지역이 범람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습재해 구간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국토해양부와 전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과 총사업비 11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예산증액을 없애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사업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수생식물과 각종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 및 갈대밭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와 징검다리, 여류

서식처 등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된다.

또한 하천정비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주변녹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번 약수천 정비로 백암산과 연계한 문화공간이 확보돼 지역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영호기자 yongho@



전남 평생학습축제 전남지역 관광객들이 23일 '제5회 전남 평생학습축제'가 열린 메타세쿼이아 장승공원을 찾아 다양한 형상의 장승을 감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도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25곳, 도내 평생학습도시 3곳 등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시 264개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감니다”

나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264개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및 시민들이 경기전체와 대령마트, 기형점 슈퍼마

켓(SSM)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나주 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264개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들은 '1기관 1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 나주 사랑 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 각

종 선물, 식자재, 생필품 구입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또 나주목사 고을시장 상인회도 추석맞이 행사로 22일 농산물 배추 특관 행사에 이어 29일 각설이 공연 및 시민노래자랑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사랑 상품권은 지난 2007년 발행이후 현재까지 판매액이 69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 업종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직업훈련원 '취업 산실' 자리매김

올 훈련원생 181명중 109명 취업

지난해 5월 개원한 나주 직업훈련원이 '취업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을 이수한 훈련원생 181명 가운데 109명이 일자리를 갖게 돼 6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명은 나주시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서 채용한 것으로 집계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과 11월 취업시점이 지나면 올 취업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 직업훈련원에서 올 8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181명 가운데 취업자는 ▲전문인력 54명 ▲전기설비 8명 ▲생산현장 인력 47명 등 모두 109명. 기업별로는 남양유업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팔도를 비롯



나주 직업훈련원 전기설비 교육.

해서 호산피네티와 국제 오엔에스 등이 뒤를 이었다.

나주 직업훈련원은 지난해 용접, 전산세무회계, 전산응용 등 교육 수요인원 221명 가운데 80%가 취업에 성공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acson@

택시운전자들 쉼터 영암 교통회관 준공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쉼터인 '교통회관'을 최근 준공했다.

준공식에는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안재경 전남지방경찰청장, 김연일 의장, 택시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 2층 건물에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 교통회관은 지난 2011년 착공해 지난 5월에 준공을 마쳤다.

군은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안내와 관광지 안내 등 365일 친절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 행사때 마다 교통지도 등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이 대기하며 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운전자 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영암 친환경 농특산물 '달마지 세트' 추석 선물 인기

영암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돼 영암군수가 인증하는 달마지 세트가 추석명절 선물을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암군 농·특산물관측단은 "단순한 농산물 포장 박스가 아닌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장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광고관으로 연일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폭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측단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 구청 등 연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 '달마지 골드'와 달마지 잡곡, 자색 양파즙 등 맞춤형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특히 '달마지 세트'와 자색 양파즙 등은 택배 주문과 일반 구매가 쇄도하고 있다.

간부공무원 부인 봉사모임인 달마지회(회장 임향숙) 회원들은 정성들여 달마지 선물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영암군 농·특산물 관측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가 심각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전 북

남원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

남원시는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2013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복보·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출장, 정지권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1085억 증액시켰다.

주요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180억원) ▲인월면 소재지 정비사업(70억원)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121억원) ▲요천 환경정비사업(100억원)

등이 신규사업에 반영됐다.

또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31억원) ▲요천생태습지 조성(3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63억원) 등 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부분이 확보돼 내년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 유관기관 투자사업비로 88 고속국도 확장공사 2000억원, 남원~곡성간 도로건설 220억원 등 2350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인 사업 완공이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 육종연구단지 5배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경제·정책성 타당성 인정

사업비 750억원으로 늘려 2015년까지 조성

김제시에 조성되고 있는 '민간 육종연구단지'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김제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모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육종연구단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을 내는 경제성분석(B/C)에서 1.0의 점수가 나온데 이어 정책적 종합분석(AHP)에서도 0.630의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1이상이거나 지역 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

의 정책적인 판단을 점검하는 종합평가(AHP)의 지수가 0.5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다.

총사업 규모는 매몰비용을 포함한 순수 국비는 644억원이며, 단지내 사유지 5.4ha 매입에 따른 도비 20억원과 향후 연구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투자하게 될 60억원을 포함하면 724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총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당초 270억원보다 증액된 사업비만큼 건설 투자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2015년 이

후 연구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백구면 옛 전북도 축산시험장 부지 10만㎡에 들어서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해 관련업체 20개 입주와 고급 육종인력 270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종자수출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정부는 전북도의 요구로 한 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비 규모를 확대(10ha·270억원→54.2ha·750억원) 하는 게 타당한 지를 재조사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 군립도서관 주부 독서교실

부안 군립 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립 도서관은 지역내 주부 40명을 대상으로 최근 도서관 3층 영상문화실에서 패밀리 토크 '책속에 다 있다'를 주제로 한 '주부 독서교실'을 열었다.

이번 주부 독서교실은 김명자 스피치 강사를 초빙해 '자녀를 기르는 길'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과 가족간 대화의 중요성 및 책과

패밀리 토크 등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배귀선 작가를 초청해 운호 아동센터에서 '문학작가와 함께 찾아가는 독서특강'을 열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을 비롯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일일 체험교실'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0월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63-580-3946)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에 송하춘 명예교수

제9회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로 송하춘(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채만식문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양호)는 지난 20일 송하춘의 5번째 단편집 '스핑크스도 모른다'는 주제의식이 강하고 구성이 탄실하며 또한 삶의 실재성을 부여하는 형상화를 통해 소설의 윤리성을 확보한 작품집이라고 평가했다.



수상자 송하춘 작가는 1944년 김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한번 그렇게 보낸 가을'로 등단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무주 머루수확 한창

최근 무주군 적산, 안성면 등 머루 재배단지에서 머루수확이 한창이다. 무주머루는 해발 350~900m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인기가 높다.

/연협뉴스

단신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문 열어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가 최근 서서학동 주민자치회관에 문을 열었다.

드림스타트 완산센터는 3개동 150명의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

독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들의 양육환경 개선과 복지 욕구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군산 시민의장' 5명 선정

군산시는 최근 '군산 시민의장' 선발전위원회 열고 ▲문화체육관광 박용희 ▲공익새마을장문신자 ▲산업근로장 김기환 ▲애환장 이태만 ▲효열장 심덕너씨를 각각 선정했다.

박용희씨는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했으며, 문신자씨는 살맛나

는 공동체 만들기 앞장섰다. 김기환씨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이태만씨는 한철쌀보리 직거래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 심덕너씨는 지체장애를 앓는 남편과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귀감이 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내달 27일 정읍 단풍마라톤대회

'제11회 정읍 단풍마라톤대회'가 정읍시민의 날을 기념해 10월 27일 오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타시(市) 시장과 국제교류협회 관계자도 참가한다. 대회는 5km, 10km, 하프 코스로 나눈다. 문화광장을 출발해 월

령교~천변로~정읍교~전북과학대~교양초~첨단산단을 달린다. 코스 중간에 백계야구 '정읍사'의 고장인 정해마을이 있고 첨단 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제연구소도 있다. 단체는 10명 이상 접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상하·해리면 민민 화합 한마당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은 21일과 23일에 상하중과 해리중에서 민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상하면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은 한상용·이갑규씨, 감사패 김영인(감산건설 현장소장)·이학

영(전 이장단협의회회장)씨, 공로패 표영현·김승면씨, 감사장 표안중씨(자율방범대)가 받았으며, 해리면민의 장은 이현국·배기천씨, 체육발전 유공자에 서수복·김순순씨가 각각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